

第145回國會 第5共和國에있어서의政治會議錄 第24號  
權力型非理調査特別委員會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9年2月22日(水)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516號室)

議事日程

- 1. 委員會運營에關한件

審査된案件

- 1. 委員會運營에關한件 ..... 1面

(10時1分 開議)

○委員長 李基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4次 本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委員長으로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時부터 우리 온 國民이 바라고 있는 光州聽聞會가 開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各 委員들은 또 常任委員會에도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會議을 效率的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野3黨만 懸談會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開議時間이 늦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委員會가 民正黨과 더불어서 舊時代를 清算하라고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또더 民正黨은 오늘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이기는 합니다. 이는 이러하진데는 바로 第5共和國과 관계가 있는 民正黨이 舊時代의 清算 다시말해서 5共和國의 非理清算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바로 한마디로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國會가 4黨體制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5共非理清算에 있어서 民正黨이 이 會議에 끝까지 참석해 주도록 계속 委員長으로서는 권유를 하고 또 野黨에게서는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말씀 간단히 드렸습니다.

1. 委員會運營에關한件

(10時4分)

○委員長 李基澤 議事日程 第1項 委員會運營

에關한件을 上程하겠습니다.

○金令培委員 委員長님!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議事進行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우리가 보드시켜 앞의 民正黨席이 다 비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委員長께서 인사말씀 가운데 유감의 표현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報道上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은 民正黨側에서 特委의 聽聞會를 '보이코트'한다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特委會議에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떤 委員長에게 公式的으로 民正黨에서는 이제 모든 5共清算을 위한 特委에 不参加하겠다고 하는 '보이코트' 宣言을 해온 것인지 아무 通報도 없이 안나오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委員長께서 밝혀주시고 이렇게 해야 우리 모든 委員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會議에 임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보고 말씀에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마침 問議가 제정기 때문에 그 동안 경위라고 할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그제께 이틀동안 4黨幹事會議를 가졌습니다. 4黨幹事會議의 내용은 물론 지금까지 우리 特委가 활동해 온 것을 마무리짓고 또 우리 全體會議에서 지금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論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特委의 5共非理에 대하여 조사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幹事會議에서 議論을 했습니다.

그런데 民正黨側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特委가 활동해 온 데 대한 마무리작업에는 參與

를 하더라도 앞으로 조사활동을 論議하자면 參與를 하지 않겠다 하는 意思表示를 새로운 앞으로의 조사에 대해서 협의하자는데 대해서는 전혀 參與할 수가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우리 幹事會議에서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들 계속 이사람이 알기로는 言論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參與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오늘 우리 全體特委會議의 내용은 지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조사활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그 조사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論議라고 民正黨에서 판단하고 오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會議을 여러가지 생략을 좀 하겠습니까.

다만 京畿道安養市冠陽洞 소재 林野의 李順子씨 소유 의혹과 관련한 全前大統領 가족의 國內外 財産조사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民正黨이 꾸준히 조사를 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는 野3黨을 個人이 가지고 있는 財産이라는 것은 자기 名義로 꼭 登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名義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全國 어느곳에 산재해 있는지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1月26日 盧大統領의 時局談話文에서 앞으로 全씨 財産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조사해서 國民에게 밝히겠다는 의지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政府는 우리 國民들에게 아무 것도 밝혀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1次的으로 全씨 財産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特委가 財産調査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政府가 먼저 이번 臨時國會 本會議에 李順子씨 땅 관계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政府가 먼저 調査를 해 달라고 우리 特委에서 全體會議의 決議를 政府에 財産調査促求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政府가 그러한 우리 國民의 바람 또 우리 特委의 決議에서의 財産調査公關을 거부한다면가 그래도 안되는 경우는 우리 特委에서 調査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이 그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野黨幹事들끼리 합의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政府 大統領도 그

런 談話를 발표했고 또 政府가 당연히 全씨를 비롯한 一家의 財産調査를 해서 國民의 의혹을 풀어 주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5共特委에서 이 부분에 대한 財産調査 및 公關促求書翰같은 것을 政府에 한번 보내는 것도 방법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幹事會議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 異議가 없으면 이것을 결의해 주면 文案을 만들어서 政府에 한번 촉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 異議가 없으시지요?

(이 예)하는 이 있음)

決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小委의 그동안 活動狀況을 잠깐 報告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는 여러 委員님들께서 다 각 小委에 배속이 되어 있고 또 言論界에서도 이미 취재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會議의 편의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앞으로 特委에서 調査活動을 더욱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小委에서 그동안 調査活動을 사실은 우리 委員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各 小委에서 참 證人들 아마 전체로 따지면 여러 수십명 國會에 불러다가 證言聽取를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마는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반면에 이러한 우리들의 調査活動이 國民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엄청나게 큰 事件 같은 것 예를 들면 國際「그룹」事件 같은 것이 小委에 배당됨으로써 오히려 그 事件자체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컸는데 왜소화되어 버리는 그런 傾向조차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가지로서 판단할 때 國民의 관심이 지대한 疑惑事件들은 우리 全體會議에서 우리 政府가 덤벼들어 가지고 調査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 野黨쪽에 그동안 대체적으로 얘기가 오고 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 懇談會에서나 幹事會議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크게 대별하면 國民의 관심사가 不實企業整理部分하고 그 다음에 疑問死 및 宗教彈壓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臨時國會期間 동안에 준비기간으로 삼고 臨時國會

가 끝나고 난 후에 본격적인 調査活動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이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 特委 調査活動에 대해서 대별해서 두가지를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떤 調査對象을 우리가 선정해서 調査活動에 임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周委員 發言하세요.

○金東周委員 金東周委員입니다.

먼저 調査對象을 委員長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決定되고 나면 다음 案件으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日海財團 心臟財團 새세대育英會 여기에서 그동안에 많은 調査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아무 이유없이 出席하지 않은 金斗煥씨와 李順子 부분에 대해서 아가各 小委員會에서 다 決議를 해서 全體會議에 上程을 해 놓았읍니다.

이래서 이 議案이 決定되고 나면 바로 이 사람들에게 대한 同行命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日時는 委員長과 우리가 會議進行에 따라서 幹事會議에 委任을 하더라도 李順子和 金斗煥 두 證人에 대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證人出席要求만 보내와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同行命命을 해서 다음에 公開會議에서 그 분들에 대한 證言을 들음으로 인해서 日海財團과 새세대育英會 心臟財團이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다음 議案으로 해 주시고 이왕 發言權을 얻었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全體會議에서 앞으로 會議를 진행해 가면서 그 會議進行方法이나 혹은 時期 이런 문제는 委員長과 幹事會議에 우리가 委任을 하더라도 일단 항간에 가장 學論이 되고 있고 또 幹事會議에서 여러번 論難이 되었던 不實企業 5個 정도와 그 다음에 人權問題 그중에서 疑問死 그 다음에 80年代 일어난 제일 큰 事件인데 지금도 분혀있고 法難事件 및 第一教會事件 이것은 宗教彈壓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人權問題는 이 두가지로 하고 不實企業問題는 지금 현재 小委員會에서 調査를 하고 있는 國際그룹! 그 다음에 大韓船洲 그다음에 明星 京南企業 그

다음에 張玲子 李哲熙씨가 관여했던 日新製鋼과 共榮土建 이렇게 동시 上程을 해가지고 조사를 함으로써 國民의 의혹도 풀어지고 또 5개의 여러가지 非道德的 特惠部門이 다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7件을 動議案을 냅니다.

○委員長 李基澤 金東周委員 動議는 그 5個 企業하고 두개의 人權彈壓事件 宗教彈壓事件 이것을 동시 조사토록 우리가 決議를 하고 그 具體的인 日程이나 이런 것은 幹事會議에다가 委任을 하자는 거죠?

○金東周委員 예.

○委員長 李基澤 懇談會에서도 대체적으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시면 可決해서 臨時國會 끝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全體特委定足數인 過半數가 되었기 때문에 可決할 것을 宣布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可決된 것을 宣布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斗煥씨와 李順子씨의 證言出席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없이 不出席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5개特委가 필요할 때까지 金斗煥씨와 李順子女史의 間接證言이나 釋明書 이런 것은 결코 우리로서는 受容할 수 없고 직접 이 特委에 나와서 證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우리 委員會에서 한번 決議를 하고 그 時期 日程은 全體特委의 日程이 잡히는 것과 함께 해서 同行命命을 發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決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金 炫委員 말씀하세요.

○金 炫委員 지금 委員長님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만 添附시킬 것은 꼭 그렇게 못나온다면 우리 委員들의 代表들이 現場에 가서라도 하는 방법을 하나 添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基澤 아닙니다.

間接證言은 다시한번 생각하고 일단 오늘 決議를 해 둡시다. 決定된 것으로 하겠읍니다.

金斗煥씨와 李順子씨의 國會出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國會出席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各種 會議때마다 그 두사람이 나와야 될

경우에 同行命令狀을 發付하는 것을 다시한번 決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金令培委員 말씀하세요.

○金令培委員 金令培입니다.

原則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問題點이 하나 있는 것은 어디에 나오라는 것이냐 하는 주문입니다. 特委 全體會議에 나오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聽聞會에 부를 것이냐 이것인데 그동안 관례로 본다고 하면 또 우리 5共特委에서 聽聞會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聽聞會에 안나왔으니까 이것이 再論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聽聞會 日字 時間을 분명히 정해서 부르도록 이렇게 해야 形式要件을 제대로 갖춘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다 생략했습니다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決議하겠습니다.

○金令培委員 앞으로 정해지면 어떻게 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돼요.

○崔溶道委員 첨가해서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委員長께서 말씀하신 것에 찬성을 하면서 그 동안에 全斗煥 李順子夫婦의 出國禁止가 우리 特委에서 요청을 했지만 法務部에서 措置가 안된 것으로 本委員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法務部에서 5共特委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出國禁止措置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시한번 出國禁止 요청을 할 것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基澤 좋습니다. 그것도 포함시키겠습니다.

盧武鉉委員 말씀하세요.

○盧武鉉委員 再請하면서 지금 幹事會議로 상당부분 調査에 관한 절차 등이 委任돼 있습니다. 그중에는 장차 證人으로 出席하거나 嫌疑가 있는 어떤 非理의 嫌疑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出國禁止가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第4小委에서 4小委調査節次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證人이 전혀 나오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調査를 할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오늘 채택된 不實企業 및 人權關係의 調査節次를 幹事會議에서

결정함에 있어서 이것에 관련된 證人들의 出國禁止節次도 아울러서 委任될 수 있도록 여기사 함께 決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基澤 예. 그것도 포함시키겠습니다.

○朴相千委員 지금 同行命令을 決議한다고 그러시는데 同行命令은 國政監査·調査法 第6條에 의해서 해당 證人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同行할 것을 命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同行命令狀에 證人의 姓名 住居 이외에 同行을 命令하는 이유와 同行할 장소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하지 않고 또 언제 부를 것인지도 정하지도 않고 同行命令決議를 한다는 것은 合理的이지 않는데 그것 再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基澤 지금 이렇습니다. 아마 金東周委員이 動議發言의 精神的 趣旨은 만약에 이 全斗煥씨와 李順子씨가 우리가 國會出席을 몇차례나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안나올 염려가 있을 것이 아니냐 앞으로 우리가 이제 朴相千委員님의 말씀처럼 新世代育英會 心臟財團 李順子女史 그다음에 日海財團도 全斗煥씨가 안나왔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 짓기 위한 再會議를 우리가 開會하려고 日程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그 두사람이 證人으로 國會에 出席을 해야 된다는 그 決議를 우리가 다시한번 하자는 것입니다. 그 決議속에는 지금 朴相千委員님이 말씀하시고 또 金令培委員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렇게 出席을 해야 될 그 日時와 그 時點에 두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決議를 다시한번 하자 그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정될 때에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안 나올 때에는 同行命令狀을 그때 發付한다 이것입니다.

○金令培委員 형식요건을 제대로 갖추는 動議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기로 하되 때와 場所 또 會議의 形式 이것은 적

절한 때를 선택하는데 幹事會議에 全權委任하는 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基澤 事前出國禁止要請 그다음에 때와 場所를 결정해서 이상 말씀드린 그 證人들이 나와야 될때는... 만약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同行命令狀을 발부한다... 그러면 出席要求와 同行命令狀을 함께 하자?

○金東周委員 바로 同行命令이지요.

○委員長 李基澤 바로 同行命令하자?  
그렇시다. 됐습니다.

○趙昇衡委員 지금 委任決議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委任決議는 안 하든지 아니면 한다고 한다면 委員長한테 委任하는 決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民正黨에서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앞으로 幹事會議의 전망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그런 불투명한 幹事會議에 委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委員長한테 委任하는 것으로 그렇게 修正해서 動議합니다.

○金東周委員 저도 받아들입니다.

○委員長 李基澤 趙昇衡委員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 다 받아들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決議형태로 의사봉을 두드리겠습니다.

바빠서 會議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時28分 散會)

○出席委員

李 基 澤	金 令 培	朴 相 千
梁 性 佑	李 東 根	林 春 元
趙 昇 衡	崔 洛 道	姜 信 玉
金 東 圭	金 東 周	盧 武 鉉
沈 完 求	金 鍾 植	金 炫
鄭 一 永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趙 在 錫
立 法 審 議 官	崔 再 喆